

“공포영화 연기해도 평소 공포물 못봐요”

영화 ‘클로젯’서 퇴마사 역할… 배우 김남길

“제가 수다쟁이라고요? 저는 말 많이 하는 것을 막 싫어합니다. 흠흠.”

김남길(39)은 반전이 있는 배우다. 차갑고 도회적인 외모와 달리 장난기 많고 유머가 넘친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내는 달변가이기도 하다. 자타공인 능청스러운 ‘입담가’인 하정우와 막상막하다. 그런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났다. 5일 개봉하는 공포 영화 ‘클로젯’(김광민 감독)에서다.

최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김남길은 “평소 공포, 오컬트 영화는 무서워서 못 본다”면서 “장르와 소재가 신선해서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내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다. “제작자인 윤종빈 감독과 (하) 정우 형이 같이 해보자고 했죠. 영화가 잘되면 앞으로 이런 장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설득하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가 맡은 역할은 퇴마사 경훈. 하루아침에 집에서 딸을 잃어버린 상원(하정우)을 도와 장롱 속에 갇힌 악령을 쫓는다. 처음에는 결렁결렁한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 능력을 입증해 보인다.

김남길의 장기간 진중함과 코믹함을 오가는 연기는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그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이 작품에서 씬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다”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톤을 맞추려 연기에 과하게 힘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영화는 공포 영화라는 장르적 외피 안에 아동학대, 가정해체와 같은 무거운 사회적 주제를 담는다.

김남길은 “장르적 색깔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사회 고발적인 영화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감독님 등과 이야기한 끝에 결국은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결론 내렸다”고 떠올렸다.

자타공인 능청 ‘입담가’

“진중함과 코믹함 표현
소재·장르 신선해 도전”

그는 극 중 다양한 퇴마 의식을 선보인다. 부적을 붙이고 주술을 외며 정신없이 복을 친다. 후반부에는 거의 신들린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남길은 “처음에는 너무 몰입해서 연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진짜 신들린 줄 알았다고 하더라”라며 “다른 오컬트 영화와 달리 귀신이나 악마를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이어서 톤을 낮춰 다시 연기했다”고 회상했다.

평소 친한 하정우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소감도 농담조로 털어놨다. “처음에는 (정우형 연기를 보고) ‘저렇게 대충해도 되나’ 싶었는데, 다 붙여놓고 보니 영화 전체를 보고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김남길은 올해 18년 차 베테랑 배우다. 2003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으로 주목받았다. 이어 드라마 ‘나쁜 남자’(2010), ‘상어’(2013)에서 도회적이면서 나쁜 남자의 매력을 뽐냈다. 스크린에서도 ‘해적: 바다로 간 산적’(2014), ‘무뢰한’(2015)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김남길은 오랜 배우 생활을 통해 산전수전을 겪으며 연기관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출연한 영화는 ‘천만 영화’가 되어야 하고, 시청률은 50%가 넘어야 한다며 흥행에 집착하기도 했죠. 뭐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장애 시달렸어요. 그러나 3~4년 전부터는 연



기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는 “군대나 주변 환경 등 타의에 의해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 스스로 내려놓게 됐다”고 했다.

김남길은 “아직 해보지 않은 장르가 많

다”며 “코믹이나 멜로, 누아르 같은 정통 장르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차기작으로 배우 정우성 연출 데뷔작인 ‘보호자’에 출연한다.

/연합뉴스

‘기생충’ 미국작가조합상 각본상 수상

오스카 수상 청신호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사진)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미국작가조합(WGA)이 주는 각본상을 받았다. 베라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제72회 WGA상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각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생충’은 ‘1917’을 비롯해 ‘복사마트’ ‘나이프스 아웃’ ‘결혼 이야기’를 제치고 트로피를 가져갔다.

각색상은 ‘조조 래빗’의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에게 돌아갔다.

WGA는 해마다 각본과 각색 분야를 중심으로 영화와 TV, 다큐멘터리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오스카 수상을 미리 접쳐볼 수 있는 전조전 성격을 띤다.

‘기생충’은 이번 수상에 따라 오는 9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각본상 등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016년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WGA 각본상을 받은 뒤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문라이트’ 역시 WGA 각본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각색상을, 2018년 ‘갯 아웃’도 WGA 각본상과 오스카 각본상을 함께 품에 안았다.

‘기생충’은 이로써 제작자조합(PGA), 감독조합(DGA), 배우조합(SAG), 작가조합(WGA)상 등 미국 4대 조합상 가운데 SAG 최고상인 앙상블상과 WGA 각본상, 2개를 가져갔다. ‘기생충’의 강력한 경쟁자인 ‘1917’은 PGA 작품상과 DGA 감독상을 챙겼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 6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연합뉴스

유재석의 1인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10% 돌파

트로트 가수에 이어 라면집 주방장까지, 가히 유재석이 혼자 펼치는 ‘무한도전’이라 할 만하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방송한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는 7.3%~10.1%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대로 경충 올라섰다.

TV 본방송보다 인터넷, 모바일 VOD를 더 많이 보는 요즘의 시청 환경에서 KBS 외 채널 주말 저녁 예능이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한 건 실로 오랜만이다. ‘무한도전’ 종영 이후 주말 예능 프라임 타임은 오후(5시~8시)에서 밤(9시~11시)로 넘어간 지 오래다.

전날 ‘놀면 뭐하니?’에선 유재석이 박명수와 정준하, 이문바 ‘하와 수’를 만나 ‘무한도전’의 향수를 자극했고, 코미디

TV ‘맛있는 녀석들’의 유민상, 김준현, 김민경, 문세윤에게 라면을 풀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설 새 없이 먹는 후배 코미디언들에게 따끔한 훈육하며 허둥지둥 요리하는 유재석의 모습은 큰 웃음을 안겼다.

다음 화에선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유재석의 라면집을 찾고, 유재석은 EBS로 찾아가 팬수와 재회한 뒤 요리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모습이 예고됐다.

확장형 예능 ‘놀면 뭐하니?’는 방송사 간 공고한 벽도 무너뜨리며 끝없이 경계를 넓히고 있다. 앞서 유재석은 트로트 가수 유산슬 자격으로 KBS 1TV ‘아침마당’, SBS TV ‘연재발굴단’ 등에 출연했고 JTBC ‘슈가맨3’에서도 자신의 노래 ‘사랑의 재개발’을 열창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야 마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설맞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통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차종우돌 만국 유람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거리의 만찬 스페셜(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배철수 점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더 라이브 40 정치합시다(재)	40 영화가 좋다(재)	10 언니네 생통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40 KBS 뉴스 50 다큐 인사이드(재)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스포츠 2019-20 PBA 투어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가 폴리 07:30 뽀빠뽀 뽀로로 08:00 당동맹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즈 09:40 아옹명령 귀여워2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3:00 EBS 다크프라임 13:55 별일 없이 산다 14:45 물랑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10 로보가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7:45 마샤와 곰(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머털도사 20:30 아옹명령 귀여워2(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놀라운 아시아, 미얀마 필리핀 -찬란한 황금의 땅〉 21:30 한국기행 〈겨울, 그림자월 1부 파로호 오지 탈출기〉 21:50 EBS 다크프라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별일 없이 산다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3일 (음 1월 10일 丙子) ☎ 010-9790-8237
--	--

	子 36년생 마주 보고 대하면 풀 수 있다. 48년생 주머니 받기니 하며 박자가 잘 맞겠다. 60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72년생 당해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어 가는 국면이로다. 84년생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불리해진다. 96년생 감세를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0, 99		午 42년생 한계면에 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4년생 갈함이 생기는 근원적인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니라. 66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78년생 현안이 쉽게 처리 되는 장면이다. 90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02년생 형편대로 도모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9, 92
	丑 37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49년생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순응하는 편이 낫다. 61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73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익하다. 85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97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할만 못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4, 61		未 31년생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 작업은 가능 하리라. 43년생 혼자서 임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55년생 확신이 섰다면 재지 말고 즉시 추진하자. 67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79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91년생 파격적인 방향으로의 선회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07, 78
	寅 38년생 임의적인 예단은 소모적일 뿐이다. 50년생 과거에 알고 있었던 바대로 인식한다면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62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74년생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86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애 요인이 드러난다. 98년생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35, 76		申 32년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44년생 차분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56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68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80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가까스로 해결 된다. 92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37, 77
	卯 39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51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불합리하다. 63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75년생 정후를 무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87년생 현명한 판단이 잠재적 생산성을 강화시킨다. 99년생 실속 없이 번거롭기만 하여 귀찮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86		酉 33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45년생 함구하고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57년생 정해진 일이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9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81년생 상대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93년생 아직은 현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4, 80
	辰 40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 되리라. 52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64년생 충분한 여유를 뒤야만 변화무쌍한 국면에 무리 없이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니라. 88년생 진중하다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00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자. 행운의 숫자 : 25, 73		戌 34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6년생 성향과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8년생 내부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70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루리라. 82년생 망심한다면 목표에 거의 다 이르러서 놓칠 수 있다. 94년생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89
	巳 41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53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이니라. 65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77년생 폐단은 가끔적 빨리 개선해야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89년생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 01년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26, 70		